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박 재 연 *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에서 발견되는 의미 확장을 환유적 확장
과 은유적 확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행’의 의미를 가지는 ‘-어서, -
다가’ 등이 ‘원인’ 혹은 ‘조건’의 의미로 발달하는 의미 확장은 문맥에서 발
생한 함축이 의미 성분으로 관습화하는 의미 성분 추가 현상에 의한 것으
로서 인접한 의미로의 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유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느라고, -답시고’가 ‘원인’의 의미로 발달하
는 의미 확장은 기존의 의미 성분의 일부가 삭제되는 의미 성분 삭제 현상
에 의한 것으로서 역시 인접한 의미로 전이되는 환유적 과정이다. 그러나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은유적 확장이 존재한
다. ‘대립’의 ‘-지만’, ‘조건’의 ‘-으면’, ‘원인’의 ‘-으니까, -어서’ 등은 일반적
으로 ‘내용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을 나타내지만 ‘인식 영역에서의 대
립, 조건, 원인’이나 ‘화행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은유적 과정이다.

핵심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 환유, 은유, 의미 성분 추가, 의미 성분 삭제,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어 연결어미에서 발견되는 의미 확장을 환유적 과정
(metonymic process)과 은유적 과정(metaphoric process)으로 나누어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결어미는 종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어미 등 다른 어미에 비해서 다의성(polysemy)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종결어미 중에는 ‘-습니다, -니, -으마’와 같이 하나의 의미 항목(sense)만을 가지는 것이 많지만 연결어미 중에는 하나의 의미 항목만을 가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가령 ‘-고’는 ‘나열, 선행, 방식, 원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어서’는 ‘선행, 원인, 방식’ 등의 의미를 가진다. 연결어미는 다른 어미에 비해 문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화용론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발견되는 언어 형식의 다의성은 통시적 의미 확장의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의 다의성에서 두 종류의 의미 확장 과정이 관찰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1) 가. 어제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

나. 출근길에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1가)의 ‘-어서’는 ‘선행’ 혹은 ‘계기(繼起)’의 의미로 기술된다. 이는 선행절 사태가 발생한 이후 후행절 사태가 발생했다는 시간적 관계를 의미한다. (1나)의 예에서도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에 선행하지만 이때의 ‘-어서’는 시간적 선행 외에도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원인’임을 더 표시한다. 문맥에서 긴밀하게 연관된 선행 사태는 후행 사태의 원인이라는 함축을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선행’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원인’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수진 2012).¹⁾ 문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축이 새로운 의미 항목으로 정착하는

1)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이 논리적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는 유명한 논리적 오류인 “post hoc ergo propter hoc(after this, therefore because of this)(Hopper & Traugott 1993/2003: 82)”와 관련이 있다.

현상은 문법화 논의에서 흔히 ‘함축의 관습화(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 현상으로 다루어졌다.²⁾

그러나 다음의 ‘-지만’의 다의성은 (1)의 ‘-어서’의 다의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2) 가. 영화는 공부는 잘하지만 성격은 그다지 좋지 않다.

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구두쇠야(이은경 1990: 46).

(2가)는 ‘-지만’이 ‘대립’ 혹은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내용적으로 대립되는 두 사태를 표현한다. 그런데 (2나)의 ‘-지만’을 ‘대립’이나 ‘양보’를 기반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표현하는 사태가 내용적으로는 대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경(1990: 46)에서는 (2나)의 ‘-지만’이 “후행절에 대한 시간적 배경이나 상황적 배경을 설명하거나 제시”하는 ‘설명’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고 이희자·이종희(1999: 388)에서는 “전제적 사실을 나타냄”이라고 풀이하였다. 김영희(2005: 45, 각주 4)에서는 이러한 예의 ‘-지만’이 ‘제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설명, 전제, 제시’가 (2가)의 ‘대립’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설명, 전제, 제시’가 선후행절의 관계나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가지는 역할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 모호한 메타언어이기도 하거니와, (2나)의 ‘-지만’의 용법은 (1)의 ‘-어서’의 경우와 같은 문맥적 함축의 관습화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가, 나)의 ‘-지만’은 결코 동음이의어가 아니며 한국어 화자라면 두 용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직관을 가진다.

본고는 (1)의 ‘-어서’의 의미 확장은 환유에 의한 것이고 (2)의 ‘-지만’의 의미 확장은 은유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어휘 항목의 의미 확장에서

2) Heine *et al.* (1991가, 나)의 ‘문맥 유도적 재해석(context-induced reinterpretation)’, Hopper & Traugott 1993/2003: 82)의 ‘대화 추론의 의미화(semanticization of conversational inference)’ 등은 모두 함축의 관습화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환유와 은유가 주요한 두 가지 인지적 원리라는 점은 일찍부터 널리 받아들여졌는데(Ullmann 1962: 8장, Kövecses 2002/2010: 251, Geeraerts 2010: 203),³⁾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 형식의 의미 확장에서도 이러한 두 종류의 의미 확장이 발견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별 연결어미 혹은 일정한 의미 범주의 연결어미에 대한 산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의미 확장의 유형을 거시적으로 대조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 본고는 ‘선행, 목적, 대립, 조건, 원인’의 연결어미들의 의미 확장을 검토하면서 환유적 과정과 은유적 과정이 개별 연결어미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연결어미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근본적인 의미 확장의 원리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논의에서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할 적절한 메타언어를 찾기 어려웠던 용법이나 관용적 표현으로 처리했던 예외적인 용법이 사실은 연결어미의 은유적 확장의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결어미 의미 확장의 두 유형

Lakoff & Johnson (1980)의 연구를 계기로 은유가 일상언어의 개념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개념적

3) 형태통사적 변화와 음운 변화에서의 주요한 두 기제가 재분석(reanalysis)과 유추(analogy)라면, 의미 변화의 주요한 두 기제는 환유와 은유이다(Traugott & Dasher 2002: 27). ‘목’이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했다.’에서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은 ‘목소리’가 ‘목’에서 나온다는 인접성에 기댄 환유적 확장이고 ‘그 빵집은 워낙 목이 좋아’에서 ‘목’이 ‘자리’나 ‘길목’을 나타내는 것은 ‘두 곳을 연결하는 좁은 곳’이라는 유사성이 기댄 은유적 확장이다(임지룡 2009: 199, 박재연 2013: 259 참조). 최지훈(1999)에서는 합성 명사의 형성 과정에서 은유와 환유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최전승(2006)에서는 전라 방언의 ‘도르다/두르다’가 ‘에워싸다’의 의미에서 ‘숙이다’의 의미로, 나아가 ‘훑치다’의 의미로 발전하는 의미 확장 과정을 은유 및 환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은유 이론의 기본 취지는 은유가 수사적 기교나 문체적 속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가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것이다. 은유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환유는 은유의 부수적 과정으로 논의될 뿐이었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환유 역시 은유와 대등한 중요한 개념화 과정으로 다루어졌고(Gibbs 1994, Kövecses & Radden 1999, Barcelona 2000가, Traugott & Dasher 2002), 은유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Barcelona 2000나). 환유는 동일한 영역의 인접한 하위 영역에서 인접성(contiguity)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고 은유는 독립된 두 영역에서 유사성(similarity)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으로 구별된다.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 항목의 의미 확장에 있어서 환유와 은유의 인지적 과정이 근본적인 층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문법화와 관련하여 문법 형식의 의미 확장에도 환유와 은유가 개입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Sweetcher 1990, Heine *et al.* 1991가: 2장~3장, 1991나: 2장, Traugott & König 1991: 4장, Hopper & Traugott 1993/2003: 85~93 등). 조은영·이한민(2011: 407)에서는 한국

4) Barcelona (2000가: 3~4)에서는 환유는 하나의 경험 영역이 이와 동일한 경험 영역에 포함된 다른 경험 영역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기제이고 은유는 하나의 경험적 영역이 다른 경험 영역으로 부분적으로 사상되는 기제라고 정의한다. Kövecses (2002/2010)은 환유는 하나의 개념적 실체(매체, vehicle)가 동일한 영역 안에 있는 다른 개념적 실체(목표, 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적 과정이고(173면), 은유는 하나의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4면).

그런데 환유적 과정과 은유적 과정이 언제나 잘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동일 영역이고 무엇이 다른 영역인지를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역 기반 견해(domain-based view)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인접성'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 기반 견해(prototype-based view)가 제안되기도 한다(Peirsman & Geeraerts 2006, Geeraerts 2010: 217~220).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는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이 구별되는 두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환유와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요약은 Barcelona (2000가), Evans & Green (2006: 9장), Evans (2009: 14장), Geeraerts (2010: 5장) 참조.

어의 반말체 종결어미 ‘-게’가 ‘목적’의 의미에서 ‘미래 행위’로 전이되는 현상을 환유에 의한 의미 변화라고 기술하였다. 박재연(2013)에서는 ‘-을게, -겠-, -자, -세, -을까, -으랴’ 등 의도 관련 어미들의 의미 확장에서 나타나는 행위주 변동 현상을 기술하면서 이 현상에 작용하는 근본 원리가 환유라고 하였다.⁵⁾ 한편 임은하(2003)에서는 연결어미 ‘-으니까’의 의미 확장을 은유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1장에서 연결어미 ‘-어서’가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선행’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확장된 결과라고 한 바 있다.

(3) 가.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다.

나.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다.

다. 너무 일찍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3가)는 ‘-어서’가 ‘선행’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3나)는 단순히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에 앞서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갔기 때문에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다’는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는 ‘학교에 늦게 가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화자와 청자가 가진 백과사전적 지식과도 관련된다. 화자는 ‘선행’의 해석만을 의도했는데도 청자가 ‘원인’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인’ 의미가 문맥에서 빈번히 추론되면 (3다)와 같이 ‘선행’이 아닌 ‘원인’에 초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서’를 사용하게 된다. 즉 이러한 의미 확장은 선행후행절 사태들의 관계에서 추론되는 함축적 의미가 관습화하여 개별 의미로 확립되는 것이다.⁶⁾

5) 환유 개념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수진(2011, 2012)에서는 의미 연결망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어미 ‘-고’와 ‘-어서’가 함축의 관습화 과정을 통하여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6) Heine *et al.* (1991가: 71~72)에서 제시한 ‘문맥 유도적 재해석’의 단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어떤 언어 형식이 핵심 의미 A 외에 특정한 문맥에서 새로운 부가적 의미 B를 획득한다. 이는 의미론적 중의성을 발생시킨다. 화자가

‘-어서’가 가지는 ‘선행’의 시간적 관계는 ‘원인’의 용법에서도 대체로 유지된다. (3다)에서도 ‘너무 일찍 학교에 간’ 사태는 ‘도서관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태보다 앞선다. 즉 문맥에서 추론된 ‘원인’의 의미 성분이 기존의 ‘선행’의 의미 성분에 덧붙으면서 ‘의미 성분 추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⁷⁾ 이러한 의미 확장은 백과사전적 지식에 입각한 함축으로 의미 해석이 풍부해지는 현상, 즉 Traugott & König (1991: 207)의 용어를 빌면 정보성 강화(strengthening of informativeness)에 바탕을 둔다.⁸⁾ 이 논의에서는 정보성 강화에 의해 생겨난 의미 확장은 인접 개념으로의 전이라는 점에서 문법화의 일반적인 원리 중 환유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201면)⁹⁾

즉 ‘선행’에서 ‘원인’으로의 의미 확장은 인접한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환유적 확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환유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아

A를 의도했는데도 청자는 B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나. 2단계: 새로운 의미 B 덕분에 해당 언어 형식이 의미 B에는 부합되나 의미 A에는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문맥에 쓰이게 된다.

다. 3단계: B가 관습화된다. 해당 언어 형식은 다의어가 되고 나아가 동음어가 될 수도 있다.

- 7) ‘의미 성분 추가’ 현상은 관습화 과정의 초기에 함축적 의미가 기존의 의미 성분에 덧붙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법 형식의 의미가 성분 분석(componential analysis)될 수 있다는 박재연(2007)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3나, 다)의 ‘-어서’는 성분 분석적으로는 [선행]과 [원인]의 의미 성분을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각주 6)에서 인용한 Heine *et al.* (1991가)의 1단계를 참조할 것.
- 8) 문법화는 어휘적인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로, 덜 문법적인 요소가 더 문법적인 요소로 발전하는 과정이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법화하는 요소는 의미의 추상화(abstraction)나 탈색(bleaching)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법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 성분이 추가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Traugott & König (1991), Heine *et al.* (1991나) 등은 문법화에서의 의미 변화를 탈색으로만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9) Brinton (1988: 102)에서는 영어의 ‘have’가 완료의 조동사로 쓰이는 의미 변화가 탈색이라기보다는 환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Traugott & König (1991: 3장)에서는 함축의 관습화에 의해 의미 확장을 보인 예로 ‘since(시간→원인), while(동시→양보), rather(시간→선호)’의 예를 다루었으며 이는 인접성에 근거한 환유적 확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니었지만 이러한 종류의 의미 확장은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의미 확장이 존재한다.

Sweetcher (1990)에서는 의미 변화에 있어서 물리적 영역에서 추상적, 정신적 영역으로 전이되는 은유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같다(like)’와 같이 물리적 닮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식론적인 ‘개연성(probability)’과 관련되는 현상, ‘듣다’와 같은 지각 동사가 ‘복종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현상에는 기본적으로 은유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영어 접속사 ‘because, so, though’ 등의 의미 확장에서도 은유적 과정이 개입한다고 보았다. 즉 영어 접속사의 의미는 ‘내용 영역(content domain), 인식 영역(epistemic domain), 화행 영역(speech act domain)’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조건’의 ‘if’의 의미 확장에 대한 고전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4) 가. If Mary goes, John will go.

나. If she's divorced, (then) she's been married.

다. If I may say so, that's a crazy idea(이상 Sweetcher 1990: 114~118).

(4가)는 선행절 사태의 실현이 후행절 사태의 실현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을 의미하는 ‘if’의 일반적인 용법이다. Sweetcher (1990)에서는 이러한 ‘if’의 용법을 ‘내용 영역에서의 조건’이라고 기술한다. 그런데 (4나, 다)에서는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 사이에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나)는 ‘그녀가 이혼한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녀가 결혼했었다’고 결론 내리게 되는 충분조건임을 의미한다. 이는 ‘인식 영역에서의 조건’이다. 또한 (4다)는 상대방에게 다음 발화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데 선행절 내용이 후행절 화행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는 뜻이다. 이는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확장은 ‘명제 내용, 명제 내용에 대한 인식, 명제 내용의 발화’와 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는 ‘조건’ 의미의 유사성에 기반한 것으로서, 영역을 넘나드는 사상(cross-domain mapping)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은유적이다.

이원표(1999), 임은하(2003)에서는 이러한 Sweetcher (1990)의 논의를 적용하여 ‘-으니까’가 ‘인식 영역, 화행 영역’에서의 의미 확장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Cui (2011: 28), 박재연(2011: 190)에서는 ‘조건’의 ‘-으면’이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을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으면’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가.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다.

나. 인사동에 가 보면 골동품이 많다(이기갑 2004: 561, 각주 19).

다. 요약하면 진정한 공부는 끊임없는 질문이다.

(5가)는 선행절 사태가 내용 영역에서 후행절 사태의 조건이 되는 예이다. 그런데 (5나, 다)의 ‘-으면’은 일반적인 조건의 의미를 준수하지 않는다. 즉 ‘내가 인사동에 가는’ 사태의 진리치는 ‘골동품이 많은’ 사태의 진리치와는 무관하다.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를 ‘인식하는’ 조건일 뿐이다. (5다)에서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발화에 대한 조건이다. ‘(화자가) (진술 내용을) 요약하는’ 사태와 후행절 사태 사이에는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요약하는 것’은 후행절 발화에 대한 조건이다.¹⁰⁾

이러한 의미 확장은 위에서 본 ‘-어서’의 의미 확장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어서’의 의미 확장에서는 ‘원인’ 용법에서도 ‘선행’의 의미 성분이 유지되면서 원래 함축이었던 ‘원인’의 의미 성분이 추가되는 ‘의미 성분 추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5나, 다)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진리치가 무관한 사태이기 때문에 명제 내용 차원에서는 조건 관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기존의 ‘조건’ 의미에 다른

10) ‘-으면’의 의미 확장이 ‘if’의 의미 확장에 완전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4.2.에서 논의한다.

의미 성분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다.¹¹⁾

또한 ‘선행’에서 ‘원인’으로의 의미 확장은 인접하되 엄연히 구별되는 의미 속성으로 전이되는 의미 확장이다. 그런데 ‘조건’이라는 의미 속성은 (5나, 다)에서도 그것이 구현되는 영역만 다를 뿐 그대로 유지된다. (5)의 ‘-으면’의 의미 확장은 위에서 본 ‘-어서’의 의미 확장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의 의미에서 ‘원인’의 의미가 발달하는 과정은 ‘목’에 ‘목에서 나는 소리’의 의미 성분이 추가되면서 ‘목소리’라는 인접 개념을 뜻할 수 있게 되는 환유적 의미 확장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¹²⁾ 반면 ‘내용 영역에서의 조건’에서 ‘인식 영역에서의 조건,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의 의미가 발달하는 과정은 ‘목’이 ‘동물의 신체’와 ‘길’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좁은 연결 부위’라는 유사성에 입각하여 은유적 확장이 일어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인지적 원리에 기반한다. 환유적 의미 확장은 연속적인 의미 확장, ‘번져 나가는’ 의미 확장이고 은유적 의미 확장은 불연속적인 의미 확장, ‘건너뛰는’ 의미 확장이다. ‘목’은 ‘동물의 신체’에서도, ‘길’에서도 ‘좁은 연결 부위’라는 공통적인 지시대상을 가지는데 이는 ‘-으면’의 의미 확장에서 ‘조건’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과 동일하다.

본고에서는 환유적 의미 확장의 예로서 ‘-고서, -자, -어서, -다가’ 등 ‘선행’ 연결어미와 ‘-느라고, -답시고’ 등 ‘목적’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을 살펴본다. 은유적 의미 확장의 예로서 ‘대립’의 ‘-지만’, ‘조건’의 ‘-으면’, ‘원인’의 ‘-으니까, -어서’의 의미 확장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두 종류의 의미 확장을 차례로 검토하겠다.

11) (5나)와 같은 예는 기존의 논의에서 ‘-으면’이 ‘조건’이 아닌 시간적 혹은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예로 간주되었다(이기갑 2004: 561, 윤평현 2005: 125). 이희자·이종희(1999: 317)에서는 (5다)와 같은 예를 ‘뒷내용을 설명함을 나타냄’이라고 풀이하였다. 모두 (5나, 다)를 ‘조건’ 의미와 무관한 별도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 본고의 3.2에서 살펴볼 ‘목적’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은 의미 성분 추가에 의한 의미 확장이 아니라 의미 성분 삭제에 의한 의미 확장이다. 모두 인접 개념으로의 전이라는 점에서 환유적 성격을 가진다.

3. 연결어미의 환유적 의미 확장

3.1. 선행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

이 절에서는 ‘-고서, -자, -어서, -다가’의 의미 확장 과정을 살펴본다. 이들은 모두 ‘선행’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로서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원인’의 해석이 함축에 머무는 경우와 독립적인 의미 항목으로 확립되는 경우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먼저 ‘-고서’와 ‘-자’의 예를 보자. ‘선행’의 의미를 표현하는 ‘-고서, -자’ 등은 모두 ‘원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6) 가. 버스가 오고서 사람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나. 학원을 그만두고서 성적이 올랐다.

(7) 가.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내렸다.

나. 한약을 먹자 병이 나았다.

(6가, 7가)는 ‘선행’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6나, 7나)는 ‘원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¹³⁾ 선행행절 사태의 인과 관계가 추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결어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함축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6나)와 (7나)의 ‘원인’의 해석은 함축일 가능성이 높다. 문맥에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가. 학원을 그만두고서 성적이 올랐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한약을 먹자 병이 나았다. 독한 양약을 끊었기 때문이었다.

(8가, 나)에서 첫 문장에서 ‘-고서, -자’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

13) 이은경(1990: 76)에서는 ‘-고서, -자’를 ‘계기’에서 ‘원인’으로 나아간 예로 들었다.

으나 이 의미는 후행하는 문장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8가, 나)에서 ‘-고서, -자’는 단순한 ‘선행’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고서, -자’의 경우에는 ‘원인’ 의미가 독립적이라고 하기 어렵다.¹⁴⁾ 함축의 관습화에 의한 의미 확장은 연속적인 환유적 과정이므로 함축에서 독립적인 의미 항목으로 전이되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서’의 경우에는 ‘원인’ 해석이 관습화되었다고 판단된다.¹⁵⁾

(9) 가.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았다.

나.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만나서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다.

(10) 가. 시골이 공기가 좋아서 매일 아침 기분이 상쾌해.

나. 내일 손님이 오셔서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9가)의 ‘-어서’는 ‘선행’, (9나)의 ‘-어서’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고서, -자’의 경우와는 달리 ‘-어서’의 ‘원인’ 의미는 확장된 의미 항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근거로 첫째, (10가)의 ‘-어서’가 가지는 ‘원인’의 의미는 문맥에서 취소되지 않는다. 가령 “시골이 공기가 좋아서 매일 아침 기분이 상쾌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와 같이 다른 원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어서’의 ‘원인’ 의미가 취소되지 않는다. 둘째, 시간 관계 연결어미는 동작의 시간적 결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행절에 모두 동사가 오는 것이 원칙인데(윤평현 2005: 209),¹⁶⁾ ‘-어서’는 (10가)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셋째, ‘-

1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고서’와 ‘-자’의 ‘선행’ 의미만 기술하고 있다. ‘원인’ 해석은 함축으로 간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15) ‘-어서’는 ‘선행, 원인’ 외에도 ‘방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세부 용법은 좀 더 복잡하다. 그러나 정수진(2012)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크게는 ‘선행’과 ‘원인’의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16) 다만 ‘-자’에는 일부 형용사가 결합될 수 있다. “날이 덥자 냉방 기계가 잘 팔리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의 예가 있다. 그러나 이때 ‘덥자’는 ‘더워지자’에 가까운 동사적 의미로 해석된다.

어서’는 (10나)에서와 같이 사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바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최상진·임채훈 2008: 147, 황화상 2008: 69~70, 각주 10)¹⁷⁾ 이는 (10나)의 ‘-어서’에서 ‘선행’의 의미 성분의 삭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 변화의 초기에 기존 의미에 새로운 의미 성분이 추가되지만 그 이후에는 본래의 의미 성분의 일부를 버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¹⁸⁾

시간적 관계가 정보성 강화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발전시키는 다른 예로 ‘-다가’의 예를 들 수 있다.

(11) 가. 영화를 보다가 나왔다.

나. 도서관에 가다가 영화를 만났어요.

다. 수업을 듣다가 하품을 했다.

‘-다가’는 본래 ‘중단(최현배 1937/1961)’, ‘전환(이은경 1990, 윤평현 2005)’ 등의 의미로 기술되었다.¹⁹⁾ 본고는 ‘-다가’가 표현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선행’의 시간 관계에 속한다고 본다. 사태의 시폭이 중첩될 수도 있으나 사태의 시작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면 선행절이 후행절에 비해 조금이라도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선행’이 ‘-다가’의 핵심 의미이며 사태의 시폭이 중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²⁰⁾

17) 이상복(1978: 62), 임은하(2003: 104)에서는 ‘-어서’가 원인으로 사용될 때에도 계기적으로 일어난 사태에만 쓰인다고 보고 (10나)와 같은 문장을 비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에게 (10나)는 가능한 문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손님이 오셔서요.”와 같이 도치된 문장은 완전히 자연스럽다는 점을 중시할 수 있다.

18) 앞의 각주 6)에서 인용한 Heine *et al.* (1991가)의 2단계를 참조할 것.

19) (11가)는 ‘완전 중단’의 예로, (11나)는 ‘불완전 중단’의 예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11나)와 같은 불완전 중단은 엄밀히 말해서 ‘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화를 만났다고 해서 도서관에 가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평현(2005: 318)에서는 ‘-다가’가 ‘계기적인 두 사태의 부분적인 중첩’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11가)와 같은 ‘완전 중단’의 경우에는 겹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첩’이 핵심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의 ‘-다가’는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다.

- (12) 가. 이불을 덮지 않고 자다가 감기에 걸렸다.
 나. 저녁마다 라면을 먹다가 위장을 다 버렸다.
 (13) 가. 안방에서 자다가 감기에 걸렸다.
 나. 냉방에서 자다가 감기에 걸렸다.

(12가, 나)에서 ‘-다가’의 의미 초점은 ‘선행’의 시간 관계보다는 ‘원인’의 논리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행’의 시간 관계도 성립한다. (13가)는 단순한 ‘선행’으로 해석되기 쉽고 (13나)는 ‘원인’으로 해석되기 쉬운데 이는 추운 방에서 자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백과사전적 지식에 의존한 해석일 뿐이다(이기갑 2004: 552~553, 윤평현 2005: 320 참조). ‘선행’ 사태가 문맥이나 화·청자의 지식에 의해 ‘원인’의 함축을 갖게 되는 현상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다가’의 ‘원인’ 의미가 완전히 관습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원인’으로 발전했다면 후행문에 형용사가 오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이지만 “제멋대로 살다가 {*가난하다, 가난해졌다}.”에서와 같이 후행절에 형용사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²¹⁾

20) ‘-다가’가 중첩된 사태 즉 동시적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절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태라는 사실은 ‘동시’를 나타내는 ‘-으면서’와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1) 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다
 나. 꿈을 꾸면서 잠을 잤다.
 (2) 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나. *꿈을 꾸다가 잠을 잤다.

‘-으면서’는 동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1가)와 (1나)가 초점은 다르지만 같은 사태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다가’가 사용되면 선행절이 반드시 시간적으로 앞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2가)는 가능하지만 (2나)는 불가능하다.

21) ‘선행’의 연결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대부분 시간적 위치를 논할 수 있는 동사만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다가’는 선행절에 형용사가 오는

한편 ‘-다가’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다(이기갑 2004: 560, 윤평현 2005: 322).

(14) 가. 너 그렇게 이불 안 덮고 자다가(는) 감기 걸린다.

나. 이러다가 오래 못 가지.

(14가)는 앞의 (13가)와 달리 후행절이 미래 사태를 가리키는데 ‘원인’보다는 ‘조건’의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예에서도 ‘-다가’의 ‘선행’의 시간 관련을 여전히 유지되며 ‘조건’의 의미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된다.²²⁾ 후행절이 미래나 가정된 사태인 경우 ‘선행’의 해석보다는 ‘조건’의 해석이 우세해진다.²³⁾

‘-다가’가 ‘선행’→‘원인’, ‘선행’→‘조건’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은 문맥과 백과사전적 지식이 ‘원인’이나 ‘조건’의 해석을 유도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다가’의 의미 확장 역시 함축적 의미가 기존의 의미 성분에 추가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인접 의미로 전이되는 환유적 의미 확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것도 가능하다. “순이는 처음에는 온순하다가 나중에는 사나워졌다(윤평현 2005: 305).”와 같은 예가 있다. 그러나 요시모토(2012: 220~221)에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예의 빈도는 극히 낮은 편이며 명령문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22) 이때 ‘조건’의 의미는 ‘주제(topic)’를 표시하는 ‘는’과 관련이 있다. 즉 ‘-다가는’ 전체의 의미가 ‘조건’으로 쓰이면서 ‘-다가’만으로도 ‘조건’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본래 주제와 조건이 개념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어서는’ 역시 ‘조건’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공부만 해서는 큰 사람이 못 돼.” 등의 예가 있다(이기갑 2004: 563, 각주 24). 이때의 ‘-어서는’ ‘선행’의 의미이므로 ‘-다가는’의 ‘조건’ 의미 역시 ‘선행’의 ‘-다가’와 ‘는’이 결합된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23) 이은경(1990: 61), 이기갑(2004: 561~567)에서 지적되었듯이 선행절 사태가 실현된 사실이고 후행절 시제가 과거로 나타나면 ‘원인’으로 해석되기 쉽고 선행절 사태가 아직 실현된 사실이 아니고 후행절 시제가 현재 시제로 나타나면 ‘조건’으로 해석되기 쉽다.

3.2. 목적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는 ‘-으려고, -고자, -느라고, -답시고’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느라고’와 ‘-답시고’를 중심으로 ‘목적’의 의미가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1.에서 본 ‘-어서, -다가’ 등이 ‘의미 성분 추가’에 의한 환유적 과정을 보여 주었다면 여기에서 논의할 ‘-느라고’와 ‘-답시고’는 ‘의미 성분 삭제’에 의한 환유적 과정을 보여 준다.²⁴⁾

현대 한국어의 ‘-느라고’는 ‘원인·이유’로 기술되기도 하고 ‘의도·목적’으로 기술되기도 하는데, ‘-느라고’가 기원적으로 의도의 ‘-오-’를 포함하는 형식임을 고려하면²⁵⁾ ‘원인·이유’보다는 ‘의도·목적’이 본래적인 의미인 것으로 생각된다.²⁶⁾

24) ‘의미 성분 삭제’는 전통적인 문법화 논의에서의 탈색 개념을 성분 분석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박재연(2013: 266, 274)에서는 “기사님, 저 내릴게요.”와 같은 예의 ‘-을게’가 ‘약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삭감한 채 ‘청자를 고려한 의도’만을 표현하는 현상을 주목하고 이를 의미 성분 감소에 의한 환유적 과정으로 보았다.

25) ‘-느라고’는 ‘-노라 하고’의 축약에서 나온 형태로서 본래 ‘-오-’를 포함하는 것이다(허용 1995: 843, 안주호 2007: 112). 이금희(2006가: 75~76)에서는 ‘-느라고’가 2, 3인칭 주어를 취할 수 있는 점, ‘의도’가 없는 문장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느라고’가 기원적으로 ‘-오-’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느라고’의 기본 의미에 ‘의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느라고’의 다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느라고’의 기원이 인용 구성인 것을 감안하면 2, 3인칭 주어를 취하는 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며 본래의 ‘의도’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6) ‘-으려고, -고자’ 등을 ‘의도’ 연결어미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로는 ‘목적’이 더 적합하다. ‘의도’는 해당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국한된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목적’은 후행절 사태를 염두에 둔 관계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의도’를 포함한 표현이 연결어미로 문법화하면 선행절 행위가 후행절 행위에 대한 목적으로 해석되어 ‘목적’의 연결어미가 된다. 실제로 ‘목적’ 연결어미 ‘-느라고, -으려고, -고자’ 등은 모두 의도를 포함한 인용 구성이 문법화한 것이다. ‘-느라고’의 ‘-오-’, ‘-으려고’의 ‘-으리-’, ‘-고자’에서는 ‘지-’가 의도와 관련된다.

다음은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는 ‘-느라고’의 예이다.

(15) 가. 숙제를 하느라고 백과사전까지 뒤졌다(이숙 1985: 133).

나. 학비를 대느라고 시골의 땅은 다 팔았다(안주호 2007: 101).

(15가, 나)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목적’으로 해석되는 예이다. ‘숙제를 하는 것’이 ‘백과사전을 뒤진’ 목적이다. 이때 선행절 사태는 물론이고 후행절 사태도 화자가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적(선행절 사태)이 있는 행위(후행절 사태)는 당연히 의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의 연결어미가 사용되면 보통은 선행절뿐 아니라 후행절에도 의도적인 사태가 온다.²⁷⁾

그런데 행위주가 가진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에서 ‘점심을 먹으자 한’ 목적은 ‘식당에 간’ 사태의 원인의 일종이다. (15나)에서 ‘학비를 댔’은 ‘시골의 땅을 다 팔’이라는 행위의 목적인데 ‘시골의 땅을 다 판’ 이유는 ‘학비를 댔’이다. 즉 ‘목적’의 관계는 의도성 있는 두 사태 사이에서 성립하는 인과 관계로서 ‘목적’은 ‘원인’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느라고’는 ‘목적’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다. ‘목적’과 ‘원인’의 해석은 후행절의 의도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²⁹⁾

27)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으려고’가 선행절에 동사를 요구할 뿐 아니라 후행절에도 동사만을 요구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음악을 들으려고 {※조용하다, 인터넷에 접속했다}.”]

28) 하위어는 상위어에 비해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의미 성분의 수가 더 많다(윤평현 2008: 155). ‘원인’에 ‘의도’의 의미 성분이 추가된 것이 ‘목적’이므로 ‘목적’은 ‘원인’의 하위 개념이 된다. ‘목적’의 절이 ‘원인’의 절처럼 ‘왜’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 “식당에 왜 갔니?”에 대한 대답으로 “배가 고파서.”도 가능하지만 “점심을 먹으려고.”도 가능하다.

29) 안주호(2007)에서는 ‘-느라고’의 의미를 ‘원인·이유’, ‘동반’, ‘의도·목적’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세 부류의 의미는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의 시간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선행절 사건시가 후행절 사건시에 앞서는 경우는 ‘원

(16) 가 영화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학원에 등록했다.

나. 영화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16가)는 ‘-느라고’가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예이고 (16나)는 ‘-느라고’가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예이다. (16가)에서는 후행절 사태가 의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행절의 목적성도 명확하다. 의도적인 사태만이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나)에서는 후행절 사태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행절은 ‘목적’이 아니라 ‘원인’의 해석만을 가진다. ‘원인’의 해석이 관습화되면서 후행절이 비의도적인 사태인 경우로 문맥이 확대된 것이다.³⁰⁾

‘-느라고’는 후행절 사태는 물론 선행절 사태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이는 ‘-느라고’의 ‘원인’ 의미가 완전히 확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17) 가. 늦잠을 자느라고 학교에 지각했다.

나. 키 크느라고 비쩍 마르는구나.

인·이유’ 두 사건시가 같은 경우는 ‘동반’, 후행절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는 ‘의도·목적’으로 규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원인’과 ‘목적’의 해석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가령 “영화는 오빠의 학비를 대느라고 공장에 다녔다.”는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가 동시적이지만 ‘목적’의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에 오르내리느라고 기술 배울 틈이 없었다.”는 선행절이 반드시 선행적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원인’으로 해석된다.

- 30) 안주호(2007)에서는 “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 많았다.”와 같은 문장의 ‘-느라고’는 ‘동반’의 의미로 기술된다. ‘-느라고’가 ‘동반’으로 해석될 경우 후행절이 ‘야단이다, 죽을 애를 쓴다, 정신이 없다, 물 끓 듯하다’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114면). 이들은 모두 후행절이 비의도적 상태인 경우의 해석으로서 본고의 논의에 의하면 ‘원인’의 예에 포함된다. 안주호(2007)에서는 이때의 ‘-느라고’가 ‘-어서’와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였으나 이는 ‘-어서’의 ‘원인’과 ‘-느라고’의 ‘원인’이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뒤에서 논의하듯이 ‘-어서’는 시차 있는 인과 관계에 쓰이고 ‘-느라고’는 시차 없는 인과 관계에 더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7가)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모두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 (17나)는 선행절에 부정물 주어가 쓰였는데 이는 ‘원인’의 의미가 완전히 확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느라고’에 기원적으로 포함된 ‘의도’의 의미 성분이 완전히 삭제된 예이다.³¹⁾ ‘목적’ 연결어미가 ‘원인’ 연결어미로 발전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의미가 더 일반적인 의미로 발달하는 과정, 즉 보다 좁은 의미 영역을 표현하던 형식이 인접한 보다 넓은 의미 영역을 표현하게 되는 환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느라고’의 ‘원인’ 의미는 ‘목적’에서 발달한 것이어서 ‘원인’의 의미로 쓰일 때에도 사태가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목적’과 그에 따른 행동은 시간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18) A: 더 드세요.

B: 아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느라고} 배가 불러요(이숙 1985: 141).

(19) 가. 우리 손주 그동안 {*공부해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나. 어제 하루 종일 {??이사해서, 이사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18)에서 보듯이 시차가 있는 인과 관계에는 ‘-느라고’는 잘 쓰이지 않고 ‘-어서’가 쓰인다. 반면 (19가, 나)에서 보듯이 시차가 없는 인과 관계에는 ‘-느라고’가 좀 더 자연스럽다. 이는 ‘-어서’의 ‘원인’ 의미는

31) ‘-느라고’가 ‘원인’으로 확장되었다면 선행절에 형용사가 오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느라고”는 불가능하다[(17나)의 ‘크느라고’는 ‘크다’가 동사로 사용된 예이다]. ‘-느라고’가 기원적으로 ‘-느-’를 포함한 형식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통합하지 않는 강력한 형태론적 제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숙희(2011)에서는 ‘-겠나고’가 하나의 연결어미로 문법화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이때 ‘-겠-’은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겠-’이므로 형용사가 통합될 수 없어야 하는데 ‘-겠다고’는 다음 예에서 일부 형용사에 통합될 수 있다. 이 논의를 참고하면 ‘-느라고’의 ‘-느-’가 형용사를 거부하는 형태론적 제약이 ‘-겠-’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자기가 편하겠다고 애들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나. 저 혼자 재미있겠다고 없는 사람들에게 돈 뿌려가며(이상 채숙희 2011: 214)

‘선행’에서 확장된 것이고 ‘-느라고’의 ‘원인’ 의미는 ‘목적’에서 확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느라고’가 시차 없는 인과 관계에만 쓰이는 것은 ‘목적’의 잔존 의미이다.³²⁾

그런데 ‘-느라고’의 ‘목적’과 ‘원인’ 의미가 언제나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20) 가. 영화를 찍느라고 {카메라를 샀다, 해외에 갔다 왔다, 배우들을 찾아다녔다}.

나. 영화를 찍느라고 {살이 빠졌다, 고생을 많이 했다}.

(21) 영화를 찍느라고 돈을 많이 썼다.

(20가)는 후행절에 의도적 사태가 와서 ‘-느라고’가 ‘목적’으로 해석된다. (20나)는 후행절에 비의도적 사태가 와서 ‘-느라고’가 ‘원인’으로 해석된다.³³⁾ 그런데 (21)의 ‘-느라고’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원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두 해석이 경계도 불분명하다. ‘돈을 많이 썼다’를 의도적 사태로 해석하면 ‘영화를 찍음’은 목적으로 해석된다. 돈을 많이 쓴 줄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쓴 것이 된다면 ‘영화를 찍어서 돈을 많이 썼다’에 가까운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두 해석이 문맥에 의해 항상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모호한 맥락이 존재하는 환유적 확장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연결어미 ‘-답시고’에 대해 살펴보자. ‘-답시고’ 역시 ‘-다 합시고’의 인용 구성에서 온 연결어미로서(이금희 2006나: 252), ‘-느라고’와 유사한 점이 많다.

32) 문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법 형식의 의미가 다른 영역으로 변화했다 하더라도 본래 의미의 흔적을 간직하는 의미 잔존(retention of earlier meaning) 현상은 흔히 나타난다(Traugott & König 1991: 198).

33) (20가)의 ‘-느라고’는 ‘-기 위해’와 대치되고 (20나)의 ‘-느라고’는 ‘-어서’로 대치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22) 가. 영화를 찍는답시고 {카메라를 샀다, 해외에 갔다 왔다, 배우들을 찾아다녔다}.

나. 영화를 찍는답시고 {살이 빠졌다, 고생을 많이 했다}.

(23) 영화를 찍는답시고 돈을 많이 썼다.

(22가)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의도적 사태를 표현한다. (22나)는 선행절이 의도적 사태이지만 후행절은 비의도적 사태이다. 후행절에 비의도적 사태가 온다는 것은 이것이 ‘원인’의 의미로 쓰인다는 증거이다. (23)는 후행절이 의도적 사태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 사태일 수도 있어서 ‘목적’과 ‘원인’의 해석에서 중의성을 보인다. ‘돈을 많이 썼다’가 의도적 사태라면 ‘-답시고’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영화를 찍기 위해 돈을 많이 썼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 사태가 아니라면 “영화를 찍어서 돈을 많이 썼다.”로도 해석 가능하다.

앞에서 ‘-느라고’가 사용된 경우 선행절에도 비의도적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답시고’의 경우에는 비의도적인 형용사 사태가 올 수는 있지만 동사 사태가 올 수는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4) 가. 언니는 얼굴이 예쁘답시고 남자들에게 쌀쌀맞게 군다(《표준국어대사전》).

나. *늦잠을 잔답시고 학교에 가지 못했다.

(24가)는 ‘-답시고’의 선행절에 형용사가 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24나)와 같이 비의도적인 동사 사태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답시고’의 의미 확장 역시 ‘-느라고’의 경우와 비슷하게 ‘의도’의 의미 성분 삭제에 의한 환유적 의미 확장 과정으로 볼 수 있다.³⁴⁾

34) Traugott & König (1991: 209)에서는 의미 변화에서 발생하는 의미 화용적 경향 중의 하나로 상황에 대한 주관적 믿음 상태나 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주관화(subjectification) 경향을 들었다. -답시고’에는 사태에 대한 가

4. 연결어미의 은유적 의미 확장

4.1.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³⁵⁾

연결어미 ‘-지만’의 다의성을 은유적 의미 확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지만’이 ‘대립’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이다.

- (25) 가. 영화는 공부는 잘하지만 성격은 그다지 좋지 않다.
나. 겨울이 왔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25가, 나)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내용상 대립된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내용상 대립되지 않는다.

- (26) 가. 같이 일해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나. 더 다녀 봐야겠지만 사무실이 분위기가 좀 냉랭해.
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첼로 연주가 너무 멋졌어요.

(26)에서 대립되는 것은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의 내용이 아니다. 가령 (26가)에서 ‘같이 일해 보지 않은’ 사태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사태는 서로 무관한 사태이다. 이때의 대립은 ‘같이 일해 보지 않은’ 사태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임을 인식한 것’ 사이에서 성립한다. ‘-지만’이 본래적인 내용 영역에서의 대립 용법으로 사용되려면 (26가)는 “같이 일해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어.”와 같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6)과 같은 ‘-지만’의 용법은 ‘인

벼운 경멸의 주관적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이금희 2006나: 25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35) ‘-지만’의 의미는 대등적 관계의 ‘역접’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종속적 관계의 ‘양보’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 문제를 비껴가기 위해 이은경(1990), 윤평현(2005)를 따라 ‘대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식 영역에서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만’의 이러한 용법에서 후행절은 화자가 인식한 내용을 표현하므로 ‘추측’의 ‘-은가 보-’, ‘과거 지각’의 ‘-더-’와 같이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관련한 요소가 후행절에 올 수 있다.

(27) 가. 같이 일해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 더 다녀 봐야겠지만 사무실이 분위기가 좀 냉랭하더라.

이때 ‘-은가 보-’나 ‘-더-’의 의미를 ‘~이라고 추측하다, ~을 알게 되다’와 같이 수행 가설(performative hypothesis)의 분석 방법으로 풀어 해석하면 ‘-지만’을 내용 영역에서의 대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지만’은 화행 영역에서의 대답을 나타낸다.

(28) 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구두쇠야(이은경 1990:46).

나. 너도 알고 있지만 그가 그렇게 몰염치한 사람은 아니다(김영희 2005: 45, 각주 4).

다. 저희 회사 광고에 한번 나오시면 좋겠어요. 윗사람에게 물어봐야겠지만요(이희자·이종희 1999: 389).

(28가)에서 ‘다 아는 사실’은 ‘그 사람이 구두쇠이다’라는 후행절 명제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 화자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그라이스(H. P. 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위배하는 발화가 된다. 이때 ‘-지만’을 사용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후행절 발화를 하는 것이 대답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28나) 역시 명제 차원에서 ‘너도 알고 있다’와 ‘그가 그렇게 몰염치한 사람은 아니다’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태와 화자가 후행절에서 진술의 발화를 하는 사태가 대답된다. 즉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화행과 대답된다. 만약 ‘-으면’이 내용 영역에서의 대답을 표현한다면 (28가)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구두쇠라고 나는 말한다.”와 같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만’을 포함한 다음의 굳어진 표현들도 화행 영역 확장과 관련된다.³⁶⁾

(29)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때의 ‘-지만’도 화행 영역에서의 대립을 표현한다. 가령 ‘미안한 사태’는 후행절 발화를 수행하는 것과 대립된다.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의 명령의 화행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지만’의 인식 영역, 화행 영역에서의 의미 확장은 2장에서 본 ‘선행, 목적’의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 즉 문맥에서 생산된 함축으로 의미 성분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의미 성분 중 일부를 삭제하면서 인접 의미로 변화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이는 ‘명제 내용, 명제 내용에 대한 인식, 명제 내용의 발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는 ‘대립’ 관계의 유사성에 기반한 은유적 확장이다.³⁷⁾

36) 이희자·이종희(1999: 388~389)에서는 이러한 용법을 [미안하다, 실례하다 등의 말에 관용적으로 붙어] 부탁하거나 청할 때 겸손하게 양해를 얻음을 나타냄이라고 뜻풀이하였다.

37) Sweetcher (1990: 76)에서는 이러한 의미 확장을 화용적 중의성(pragmatic ambiguity)으로 다루었다. 심사위원 중의 한 분께서는 본고에서 환유적 현상으로 다룬 것은 의미론적인 과정이지만 은유적 현상으로 다룬 것은 화용론적인 과정으로서 함께 다룰 수 없다고 하셨다. ‘선행, 원인, 목적’ 등의 의미와 ‘인식 영역에서의 원인, 화행 영역에서의 대립’ 등이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 ‘-으니까’의 ‘인식 영역에서의 원인’ 용법은 ‘발견’ 등의 의미로, ‘-으면’의 ‘화행 영역에서의 대립’은 ‘설명’ 등의 독립된 의미 항목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그 의미 확장 과정을 분명히 보여 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모든 의미 확장이 화용론적 해석에서 시작되는 것은 자명하다. 환유적 확장에서도 함축의 관습화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보았거니와 어떤 현상이 의미론적인가 화용론적인가는 결국 관습화 정도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인지언어학적 관점은 의미론적인 의미와 화용론적인 의미의 경계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문맥의 ‘안내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Evans & Green 2006/임지룡·김동환 역 2008: 236). 필자로서

4.2. 조건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

2장에서 ‘-으면’의 의미 확장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30)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다.

(31) 가. 휴일에 에버랜드에 가면 전국의 유모차가 총출동해 있어.

나. 오래 지내 보면 팬찮은 사람이더라.

(32) 가. 거칠게 말하면 한국에서 정규직은 특권화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노예화되어 있다.

나.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씩 좋아요.

(30)은 내용 영역에서의 조건을 표현하는 ‘-으면’의 일반적인 용법이다. (31가, 나)는 인식 영역에서의 조건을 표현한다. (32가, 나)는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을 표현한다.

(31)과 같은 인식 영역 확장 용법의 경우 선행절에는 화자의 인식 행위가 발생한 계기를 기술하는 내용이 온다. (31가)의 내용을 선행절 상태 사이에 조건 관계가 성립하도록 표현하려면, 즉 내용 영역 용법의 ‘-으면’으로 표현하려면 “휴일에 에버랜드에 가면 전국의 유모차가 총출동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라고 해야 한다. 후행절에는 선행절의 조건에서 인식한 내용이 오기 때문에 (31나)에서와 같이 후행절에는 ‘-더-’와 같은 인식 양태 요소가 올 수 있다.³⁸⁾ 한편 ‘-으면’이 화행 영역 확장 용법으로 쓰인 (32나)의 의미를 내용 영역 용법으로 쓰려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존다고 말할 수 있어요.’와 같이 쓰여야 할 것이다.

는 “인사동에 가 보면 골동품이 많다.”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명제 내용 차원의 조건 관계를 가지지 않는 ‘-으면’의 용법을 굳이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추워진다.”의 ‘-으면’과 의미론적으로 같으나 화용론적인 해석에서 다르다고 기술하는 것의 이점을 찾기 어렵다.

38) 이때 ‘-더-, -겠-’ 등을 수행 가설적으로 풀어 해석하면 ‘내용 영역에서의 조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으면’의 인식 영역 확장 용법은 앞에서 본 영어의 ‘if’의 인식 영역 확장 용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장에서 보았듯이 “If she’s divorced, (then) she’s been married.”는 화자가 선행절 사태를 ‘알게 된’ 것이 후행절 사태를 알게 된 조건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31)의 ‘-으면’은 ‘선행절 행위를 화자가 수행한 것’이 후행절 사태를 알게 된 조건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즉 위의 영어 문장을 “그녀가 이혼했으면 그녀는 결혼했었다.”와 같이 직역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그녀가 이혼한 것을 보면 그녀는 결혼했었다.”가 좀 더 자연스럽다.

라디오 방송의 다음과 같은 발화도 ‘-으면’이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보여 준다.

- (33) 매일 저녁 여섯시부터 여덟시까지 편안하고 친근한 음악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인터넷 주소입니다. 더블유더블유 점 시비에스 점 시오 점 케이알(www.cbs.co.kr) [후략](CBS FM, ‘배미향의 저녁스캐치’ 고정 안내 발화)

밑줄 친 발화의 선행절과 후행절이 통상적인 ‘-으면’의 조건 관계에 의해 접속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선행절과 후행절은 명제 내용의 차원에서 조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행절은 후행절 발화의 조건일 뿐이다. ‘(청취자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사태가 화자가 인터넷 주소를 알려 주는 발화를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굳어진 표현으로서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등에서 나타나는 ‘-으면’도 화행 영역 확장의 용법으로 기술할 수 있다.⁴⁰⁾

39) 이러한 문장은 어떤 관점에서는 비문에 가깝다. 그러나 필자가 이 방송을 들은 10여 년 동안 이 발화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청취자들에게 수용되고 있음을 증시한다.

40) 이러한 예는 이은경(1990)에서는 ‘조건’과는 별도의 의미 범주 ‘설명’으로 기술된다.

- (34) 가. 예를 들면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나. 다시 말하면 미디어에서 컨테이너란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 상태를 정의할 뿐이다.

(34가)에서 ‘예를 드는 것’은 후행절 사태의 사실성에 대한 조건이 아니다. ‘(화자가) 예를 드는’ 사태와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사태 사이에는 조건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드는 것’은 후행절 화행(진술)의 조건이다. ‘예를 드는’ 조건에서 후행절 발화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34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는’ 사태와 후행절 사태 사이에서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는’ 조건에서 후행절 발화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지만’에서 보이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 ‘-으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원인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

이원표(1999), 임은하(2003)에서는 ‘-으니까’에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논의한 바 있다.⁴¹⁾ ‘원인’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는 의미 확장은 앞에서 본 ‘대립’이나 ‘조건’의 연결어미에 비하면 복잡한 문제가 많다. 먼저 ‘-으니까’의 예를 보자.

- (35) 겨울이 {되니까, 되어서} 해가 빨리 진다.

(35)에서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에 대한 원인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으니까’가 ‘내용 영역에서의 원인’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예이다.

41) 임은하(2003)에서는 같은 ‘원인’의 연결어미 ‘-길래, -기에, -기로, -다고’에서 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으니까’가 사용된 다음 예는 ‘발견(남기심·루코프 1983)’, ‘설명(이은경 1990: 35)’, ‘지각 상황 설정(서정수 1994: 1198)’, ‘지각(윤평현 2005: 261)’ 등의 용법으로 기술되었다.

(36) 가.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갈비찜을 해 놓으셨다.

나. 청계천 상가에 가 보니까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윤평현 2005: 240).

다. 오래 겪어 보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더라.

(36가~다)의 예에서 ‘-으니까’는 선행절 상황에서 후행절 사태를 발견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으니까’의 용법을 ‘원인’ 용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다루었으나 이때에도 ‘원인’의 의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가)의 예는 집에 간 것이 어머니가 갈비찜을 하신 것을 알게 된 계기라는 의미이다. 즉 선행절의 화자의 행위는 화자가 후행절 사태를 알게 된 계기, 즉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으니까’의 이러한 용법은 ‘-으니까’가 ‘인식 영역에서의 원인’의 의미로 확장된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Sweetcher (1990)에서는 영어의 ‘because’가 “He loves her, because he came back.”과 같은 문장에서 ‘인식 영역에서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런데 ‘-으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으니까’도 영어의 ‘because’에 정확히 대응하는 인식 영역에서의 확장 용법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37) 가. *철수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는가 보다.

나. 철수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니까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는가 보다.

(38) 가. ??땅이 젖어 있으니까 간밤에 비가 왔다.⁴³⁾

42) ‘계기(契機)’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이다.

43) 남기심(2001: 268)에서는 “같이 지니까 비가 온 것이 틀림없다.”의 예에서 ‘-으

나. 땅이 젖어 있는 걸 보니까 간밤에 비가 왔어.

영어의 'because'가 가지는 인식 영역에서의 확장 용법은 '그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를 직역한 (37가)와 같은 표현은 불가능하다. 인식의 계기가 된 행위 자체가 선행절로 오는 (37나)와 같은 문장이 자연스럽다. 즉 '철수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본 것'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이유라는 것이다. (38)에서도 (38가)보다는 (38나)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인식 영역 확장 용법에서는 선행절에 1인칭 주어를 취하고 인식의 계기를 나타내는 동사가 많이 쓰인다.⁴⁴⁾

이때 후행절에는 선행절 행위의 결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오히려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겠-, -더-, -네' 등이 통합되기도 한다. 이는 '-지만'과 '-으면'의 인식 영역 확장 용법에서도 보았던 현상이다.

(39) 가. 영희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더라.

나. 선거에서 떨어지고 보니 불쌍한 사람은 본인과 그 가족이더라
(윤평현 2005: 263).

다. 집에 가니까 글썄 엄마가 혼자 김장을 하고 계시네.

(39가)는 “영희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것을 새롭게 추측하게 되었다.”의 의미이다. 이때 '-겠-, -더-, -네'를 수행 가

니까'가 화자의 추리 판단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직관을 존중한다면 '-으니까'가 'because'와 유사한 방식의 의미 확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길이 진 것을 보니까 비가 온 것이 틀림없다.”가 훨씬 자연스럽다.

44) '-으니까'가 소위 '발견' 용법에서는 선행절에 형용사가 올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이은경 1990: 35). 이는 선행절이 인식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발견' 용법의 선행절에는 '가다, 오다' 등 이동 동사나 '생각하다' 등의 사유 동사, ' 물어보다' 등의 발화 동사 등이 자주 쓰이는데 이들은 모두 인식의 계기 혹은 방법과 관련이 있다(박재연 2011: 192, 각주 32).

설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내용 영역 원인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도 기술할 수 있다.⁴⁵⁾

한편 임은하(2003)은 다음과 같은 ‘-으니까’를 화행 영역에서의 의미 확장이 일어난 예라고 하였다.

- (40) 가. 열쇠 있는 델 아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 주세요(임은하 2003: 16).
 나. 날씨가 풀렸으니까 집안 청소나 하자.
 다. 약속을 했으니까 신발은 사 주마.

(40)의 선행절은 화자가 후행절 화행을 하게 된 원인이다. 임은하(2003)에서는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오는 예를 ‘-으니까’의 의미가 화행 영역에서 확장된 예로 들었다. 그런데 ‘-으니까’의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은 후행절의 화행의 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 (41) 가.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나 너 좋아해.
 나. *내가 혼자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그거 100페이지쯤에 있어.
 다. 열쇠 있는 델 아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
 (42) 가. *제가 여기 지리를 모르니까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나요?
 나. 오늘 나 한가하니까 영화 보러 갈래?

(41가, 나)는 ‘-으니까’의 후행절이 평서문인 경우이다. ‘-으니까’의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이 성립한다면 (41가)는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고백한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41가, 나)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41다)는 후행절이 평서문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한편 (42가)는 후행절에 순수하게 정보를 물어보는 의문문이 온 경

45) 관용적 쓰임을 보이는 ‘알고 보면’과 ‘알고 보니까’는 모두 ‘-으면’과 ‘-으니까’가 인식 영역 확장 용법을 보이는 예이다.

우인데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42나)와 같이 청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의문문이 오면 성립한다. 즉 후행절에 ‘명령, 청유, 약속, 청자의 의도에 대한 질문’ 등 ‘의도’를 포함하는 화행 유형이 오는 경우에 ‘-으니까’의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이 제한적으로 성립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⁴⁶⁾

다음으로 ‘-어서’의 은유적 의미 확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⁴⁷⁾ 임은하(2003)에서는 ‘-어서’는 ‘-으니까’와는 달리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의 은유적 확장을 겪지 않는다고 하였다.

(43) 가. 학교에 {*가서, 가니까} 아이들이 많더라.

나. 집에 {*가서, 가니까} 엄마가 갈비찜을 해 놓으셨다.

(44) 가. *열쇠 있는 델 알아서 여기서 좀 기다려 주세요.

나. *내가 용기를 내서 나 너 좋아해.

다. *내가 혼자 못 찾을 것 같아서 그거 100페이지쯤에 있어.

(43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어서’는 ‘-으니까’에 대응하는 인식 영역 확장 용법을 가지지 않는다. (44가~다)는 ‘-어서’가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어서’가 이끄는 절이 후행절 뒤로 도치되거나 ‘-어서’ 뒤에 ‘요’가 통합되어 선행절과 후행절의 분리성이 커지면 ‘-어서’도 화행 영역 확장에 해당하는 용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45) 가. 그거 100페이지쯤에 있어. 네가 혼자 못 찾을 것 {같아서, *같으니까}.

나. 빨리 손 씻고 식탁에 앉아라. 오늘은 내가 너희 {*엄마라서, 엄

46) 심사본에서는 ‘-으니까’의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이 후행절이 평서문이나 의도를 포함하지 않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었다. 심사위원 중의 한 분께서 (41다)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약이 문장 유형이 아닌 화행 유형과 관련 있다고 지적해 주셨다.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47) ‘-어서’는 본래 ‘선행’이 기본 의미이고 ‘원인’은 거기서 환유적 확장을 겪은 2차적 의미임을 3장에서 본 바 있다.

마니까}.

(46) 가. 제가 부산에 {살아 봐서요, *살아 봤으니까요}, 부산은 거울에 하나도 안 추워요.

나. 저, 제가 여기 지리를 {몰라서요....., *모르니까요.....}, 혹시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나요?

(45가)는 ‘-어서’가 통합된 절이 뒤로 도치된 것인데 잘 성립한다. ‘네가 혼자 못 찾을 것 같다’고 화자가 추측한 것이 ‘그것이 100페이지쯤에 있다’라는 진술의 발화를 하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⁴⁸⁾ 그러나 (45나)와 같이 명령문이 사용될 수는 없다. 이는 본래 ‘-어서’는 후행절에 명령문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46가, 나)는 ‘-어서’ 뒤에 ‘요’가 통합된 것으로서 화행 영역 확장 용법으로 성립 가능하다. 이 경우 ‘-으니까’는 사용되지 못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으니까’는 후행절에 ‘의도’를 포함하는 화행 유형이 사용된 경우에만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을 가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행절과 후행절의 분리성이 커지면 ‘-어서’의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⁹⁾

다음과 같은 ‘-어서’의 용법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47) 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드니까} 어린이들의 하루 수면 시간과 놀이 시간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 있다.

나.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니까} 어떤 사태의 흔적을 보고 그 사태를 추론하는 것이다.

48) (45가)는 “그거 100페이지쯤에 있어서. 네가 못 찾을 것 같아서 이 말을 했어.”에서 ‘이 말을 했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5나)에서 ‘-어서’가 쓰이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

49)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보인다. ‘because, since, although’의 인식 영역, 화행 영역 확장 용법에서도 휴지나 반점(.)이 필수적이다. “Anna loves Victor, because he reminds her of her first love.”가 인식 영역 확장 용법으로 해석되려면 주절 뒤의 하향 억양과 휴지 혹은 반점이 필요하다(Sweetcher 1990: 82~83).

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면, *말하니까}, 철수는 그때 바보 짓을 한 것이었다.

라. 솔직하게 {말해서, 말하면, *말하니까},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꼭 즐겁지는 않다.

(47가~라)의 ‘-어서’는 기존의 ‘선행, 원인, 방식’ 등 ‘-어서’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설명되기 어렵다.⁵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어서’의 용법이 ‘-으면’의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 용법과 평행하다는 것이다.⁵¹⁾ (47가)에서 ‘예를 드는 것’은 후행절 사태의 사실성에 대한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후행절 화행(진술)의 조건이나 원인이다. 이때 ‘예를 들면’과 ‘예를 들어(서)’의 기능은 합류된다. ‘-으니까’는 후행절이 ‘진술’의 화행 유형을 가질 때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 경우 ‘-으니까’는 사용될 수 없다. ‘-어서’가 선행절이 후행절 뒤로 도치된 경우에만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서’ 역시 후행절과 분리성이 높기 때문에 화행 영역 확장 용법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⁵²⁾

50) 이희자·이종희(1999: 337, 345)에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의 ‘-어, -어서’가 모두 ‘설명의 뜻을 나타냄’으로 풀이되어 있다.

51) ‘조건’은 흔히 ‘원인 함축(causal implication)’을 가져서(Saeed 1997/2009: 93), “영회가 오면 철수는 간다.”는 많은 경우 “영회가 와서 철수가 간다.”를 함축하는데, 이와 관련 있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52)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기갑(1998: 108~109)에 의하면 15세기 한국어의 ‘-어’는 현대의 ‘-어’에 비해 쓰임이 훨씬 광범하여 ‘-고, -으려고, -으면서’로 쓰일 문맥에서도 ‘-어’가 쓰였다. “이 꽃은 진달래가 아니라 철쭉이다(이기갑 1998: 118)”와 같은 예에 ‘-어’의 이전 시기 용법의 잔영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서’는 ‘예를 들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어’의 이전 시기 용법의 잔영일 가능성도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을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논 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의 의미를 가지는 ‘-어서, -다가’ 등이 ‘원인’ 혹은 ‘조건’ 의 의미로 발달하는 의미 확장은 문맥에서 발생한 함축이 의미 성분으 로 관습화하는 의미 성분 추가 현상에 의한 것으로서 인접한 의미로의 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유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느라고, -답시고’가 ‘원인’의 의미로 발 달하는 의미 확장은 기존의 의미 성분의 일부가 삭제되는 의미 성분 삭제 현상에 의한 것으로서 역시 인접한 의미로 발달하는 환유적 과정이다.

셋째, ‘대립’의 ‘-지만’, ‘조건’의 ‘-으면’, ‘원인’의 ‘-으니까, -어서’ 등 은 일반적으로 ‘내용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을 나타내지만 ‘인식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이나 ‘화행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은유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기존의 논의에서 그 의미가 선명하게 기술되지 못한 일부 연결 어미의 ‘설명, 전제, 제시’ 등의 용법과 해당 연결어미의 기본 의미로 잘 설명되지 않은 일부 용법들은 ‘명제 내용, 명제 내용에 대한 인식, 명제 내용의 발화’ 등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연결어미의 은유적 확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더 많은 연결어미를 다루지 못하였으나 다른 연결 어미의 의미 확장도 환유와 은유의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동시’의 의미를 가지는 ‘-으면서’가 “너는 밥을 안 먹었으면서 왜 먹은 척하니?” 에서 ‘대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의미 성분 추가에 의한 환유적 확장의 결과이다. 반면 “홍보가 기가 막혀 대답하되, 제가 홍보올시다.”에서 의 ‘-되’는 일반적인 ‘-되’의 ‘배경’ 용법과 잘 연결되지 않는데,⁵³⁾ ‘-되’

53) 윤평현(2005: 275)에서는 이러한 ‘-되’의 용법을 ‘인용’이라는 의미로 기술하는

의 ‘배경’ 의미가 화행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건’의 ‘-을진대’, ‘원인’의 ‘-은즉슨’에서도 각각 ‘-으면’과 ‘-으니까’와 유사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환유와 은유는 새로운 사물에 대한 명명, 어휘 형식과 문법 형식의 의미 확장, 나아가 간접 화행과 같은 화용론적인 현상 등 어휘적·문법적·화용적 현상과 통시적·공시적 현상에 두루 퍼져 있는 광범위한 인지적 원리이다. 이 논문의 의의는 한국어 연결어미라는 특정한 부류의 의미 확장에서 환유와 은유라는 근본적인 인지적 원리가 작동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인 데에 있다.

참고문헌

- 김영희(2005), 《한국어 통사 현상의 의의》, 역락.
-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루코프(1983),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니까’와 ‘-어서’ 구문, 고영근·남기심 공편(1983),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2-27.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과 통사론·의미론·화용론,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81-206.
-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국어학회, 167-197.
- 박재연(2013), 한국어 의도 관련 어미의 환유적 의미 확장, 《국어학》 68, 국어학회, 253-288.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안주호(2007), 연결어미 {-느라고}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학회, 97-121.
- 요시모토 하지메(2012), 연결어미 ‘-다가’의 기능과 문법적 제약, 《국어교육》 137, 한국어교육학회, 213-235.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금희(2006가), ‘-느라고, -느라면, -느라니까’의 통사 의미적 특징,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59-86.
- 이금희(2006나),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 국어학회, 233-258.
-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5:2, 담화와 인지학회, 101-121.
- 이기갑(2004), ‘-다가’의 의미확대, 《어학연구》 40: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43-572.
- 이상복(1978),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아서’를 중심으로, 《말》 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9-80.
- 이숙(1985),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적·통사적 분석, 《말》 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25-145.
- 이원표(1999), 인과관계 접속표현: 세 가지 의미 영역과 일관성의 성취, 《언어》 24: 1, 한국언어학회, 123-158.
- 이은경(1990), 국어 접속어미 연구, 《국어연구》 97, 국어연구회.
- 이희자·이중희(1999),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은하(2003), 현대국어의 인과관계 접속어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 의미학회, 193-226.
- 장광군(1999),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월인.
- 정수진(2011), 연결어미 ‘-고’의 다의적 쓰임에 대한 인지적 해석, 《언어과학연구》 58, 211-232.
- 정수진(2012), 연결어미 ‘-어서’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405-426.
- 조은영·이한민(2011), 반말체 어미 ‘-게’의 문법화와 의미 변화,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 의미학회, 391-417.
- 채숙희(2011), 목적의 ‘-겠다고’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4: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5-225.
- 최상진·임채훈(2008), 인과관계 형성의 인지과정과 연결어미의 상관성: ‘-어서’, ‘-니까’, ‘-면’ 등을 중심으로, 《국어학》 52, 국어학회, 127-152.
- 최전승(2006), 국어 지역 방언에서 일어난 의미 변화의 일반적 발달 경향과 환유(metonymy)와의 상관성: 전라방언에서 ‘도르다/두르다’형의 의미 전이(欺>盜)의 경우를 중심으로,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167-215.

- 최지훈(1999), 은유, 환유에 의한 전의 (轉義)합성명사의 연구: 인지의미론적 접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차 학술대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81-190.
-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황화상(2008),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의미 기능과 후행절 유형, 《국어학》 51, 국어학회, 57-88.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Barcelona, A. (2000가), Introduction: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in Barcelona *ed.* (2000), 1-28.
- Barcelona, A. (2000나), On the plausibility of claiming a metonymic motivation for conceptual metaphor, in Barcelona *ed.* (2000), 31-58.
- Barcelona, A. *ed.* (2000),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Mouton de Gruyter.
- Brinton, L. (1988), *The development of English aspectual systems: Aspectualizers and post-verbal partic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i Chao (2011), 조건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연구: ‘-으면, -거든, -아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vans, V. & M. Green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임지룡·김동환 역(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 Evans, V. (2009), *How words mean: Lexical concepts, cognitive models, and meaning 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eeraerts, D. (2010),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Gibbs, R. W. Jr.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ne, B., U. Claudi & F. Hünemeyer (1991가),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 U. Claudi & F. Hünemeyer (1991나), From cognition to grammar: Evidence from African language, in Traugott & Heine *eds.* (1991), 149-187.
- Hopper, P. J. & E. C. Traugott (1993/2003), *Grammaticalization(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vecses, Z. (2002/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nther, K. & G. Radden eds. (1999),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eirsman, Y. & D. Geeraerts (2006), Metonymy as a prototypical category, *Cognitive Linguistics* 17, 269-316.
- Radden, G. & Z. Kövecses (1999), Toward a theory of metonymy, in Panther, & Radden eds. (1999), 17-59.
- Saeed, J. I. (1997/2009), *Semantics*(3rd edition), Wiley-Blackwell.
- Sweetch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 & R. B. Dasher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 & B. Heine eds. (1991),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ume 1: Focus 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Traugott, E. C. & E. König (1991),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 Heine eds. (1991), 189-218.
-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Basil Blackwell.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번호: 031-219-2806
전자 우편: peace@ajou.ac.kr
투고 일자: 2014. 5. 1.
심사 일자: 2014. 5. 22.
게재 확정 일자: 2014. 5. 30.

Metonymy and metaphor in the semantic extensions of
Korean connective endings

[Bak, Jae-yeon]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박재연]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fferentiate two kinds of semantic extensions in Korean connective endings: one is metonymic and the other is metaphoric. The semantic extension from 'preceding' to 'cause' or 'condition' found in '-eoseo, -daga' is the metonymic process by adding a semantic component. The semantic extension from 'goal' to 'cause' found in '-neurago' and '-dapsigo' is also the metonymic process by deleting a semantic component. By contrast, the metaphorical semantic extension can be found in connective endings. The primary senses of '-jiman, -eumyeon, -eunikka, -eoseo' are 'contrast, condition, cause' in content domain, but they can be used as 'contrast, condition, cause' in epistemic domain or speech act domain. This semantic extension is a kind of metaphoric process by cross-domain mapping in the different two domains.

Key words: connective ending, semantic extension, metonymy, metaphor,
adding or deleting a semantic component, content domain,
epistemic domain, speech act domain